

'박장대소' 하다보면 쯤~한 감동이

'학문외과-네 여자의 이야기' 앙코르 공연 ... 6월 14일까지 씨디아트홀

서울 '100페스티벌'에 지역극단 중 유일하게 참가

극단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서라도 소극장을 갖고 싶어하는 건 수정 과정을 거쳐 업그레이드 버전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대표 이형원)는 지난해 소극장 개관 후 '마술피리', '의자는 없다'를 버전업하며 장기 공연을 진행했고 현재 '학문외과'를 장기공연중이다. 지난 2월 초연후 수정 과정을 거쳐 두 번째 진행되는 앙코르 공연이다. 6월 14일(목~토 오후 7시30분, 일 오후 3시)까지 씨디아트홀.

'학문외과'는 박장대소하며 웃다 쯤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유쾌한 작품이다. 주인공은 감추고만 싶은 병인 치질 치

료를 위해 입원실에서 만난 4명의 여자들이다. 약값같이 삶 버려온 고깃집 주인 최춘자, 우아하기 이를 데 없는 사라 정, 난봉꾼 남편 때문에 평생 속을 썩여온 박복녀 할머니, 술집에서 일하는 수진 등 네 여자가 만들어내는 에피소드가 주된 줄거리다.

'학문외과'는 치질이라는 소재를 차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주인공들의 삶은 바로 나, 그리고 이웃들의 삶의 모습이다. 다소 정형화된 인물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억지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들이 재미있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여배우들의

양상들이 좋다. 극의 재미를 더하는 것은 멀티엔 역할을 맡은 이기인씨의 연기. 춘자 남편 등 1인 6역을 맡은 이씨가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의 웃음보가 터진다. 차마 아디에 물어볼 수 없었던 치질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얻는 건 덩이다.

이기인씨가 대본을 썼으며 정경아·고난영·양정인·김소영·박선영씨가 출연한다. 일반 2만원, 학생 1만 5천원. 카페(cafe.daum.net/CreativeDrama) 예약시 5천원 할인.

한편 극단의 첫번째 창작극인 '학문외과'는 서울무대에도 선다. 14개 팀이 참가하는 '100페스티벌'(6월 19~21일)을 통해 선다. 지난해 소극장페스티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초청받았다. 문의 062-521-75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처갓집 가는 길'

박은용 '뫼다한 삶에의 열정...'

31일까지 함평 잠월미술관에서 유작전

지난해 타계한 한국화가 박은용 화백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물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유작전이 열린다. 오는 31일까지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 잠월미술관.

진도 출신인 박 화백은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화면에 농촌의 일상을 담아 왔다. '뫼다한 삶에의 열정, 그리고 남겨진 이야기'를 주제로 동생을 업어주는 누이, 여

물 주는 농부, 복욕하는 아낙 등 남도의 푸근한 정서가 묻어나는 그의 작품이 전시된다.

젊은 선으로 모나지 않은 산과 투박한 물감을 표현했고, 등장인물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선명하게 형상화된 작품이다.

'처가 가는 길'은 꽃이 피어있는 산길을 걸어가는 일가족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며,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들을 등장시켜 정겨운 봄날 풍경을 묘사했다.

또 '두 여인'은 바닷가 돌산을 배경으로 푸가하는 여인들을 표현했는데, 거친 삶의 고통에도 희망을 잊지 않고 꽃피어 살아가는 여인들의 생명력을 담아냈다.

서라벌예대를 졸업한 그는 실경 산수를 바탕으로 한국화의 전통 재료와 기법을 이용해 남도의 정서를 머금은 정감 어린 작품을 남겼다. 또 한국문화예술진흥장서과 의재미술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06년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뫼다한 바닷바람' 전 등의 전시회를 열었다. 문의 061-322-671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치질을 소재로 한 연극 '학문외과'에 출연한 주연화 일정이 지난 15일 첫공연을 마친 후 꽃다발을 들고 출연배우, 관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치질 설명해주는 의사... 긴장되지만 재미있어요"

'학문외과' 진짜 의사배우 주영화 원장

연극 '학문외과'에는 특별한 인물이 무대에 오른다. 치질 전문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연극이다 보니 의사 선생님의 출연은 필수적. 이번 작품에는 '진짜' 의사가 배우로 나섰다.

주인공은 광주 학문외과 주영화(53) 원장. 주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첫번째 공연에서 의사로 출연했다. 극의 초반 주인공 사라 정에게 치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이다.

주원장은 오는 22일에도 출연하며 공연이 끝나는 6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관객들을 만난다.

"첫 공연이라 긴장하기는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사라 정이랑 대사 맞춰보고 그림 때는 어려울 줄 몰랐는데 막상 무대에서는 언제 퇴장할 줄 몰라 예 좀 먹었죠.(웃음). 의사 역을 맡은 배우의 대사가 약간 연극적으로 각색이 됐지만 전 좀 더 의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할까요. 좋은 추억이 되고 인생에 있어 또 다른 도전

이라는 생각이 무대에 있는데 뿌듯하네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 이름과 똑같은 제목의 연극이 공연된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직원들과 공연을 보러 갔던 주원장은 연출자 이형원씨로부터 앙코르 공연 때 '의사' 역할로 출연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연극을 참 재미있게 봤어요. 환자분들이 의사에게는 증상 등을 이야기할 때 좀 꺼려하는데, 병실 장면에서 환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아, 저렇게 말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느낀 것도 많았어요. 의대 시절 연극반에서 활동한 적도 있는데 인생에 있어 새로운 시도라 재미있었다고 생각해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원장은 단원들과 3~4차례 연습을 진행한 후 대사를 자신에게 맞게 수정했다. 또 환자 회진을 도는 장면을 따로 추가해 공연 중이다. 주원장은 자신이 출연하는 날은 '특기'를 살려 환자와 관련된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도 갖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청소녀에 클래식 선율을

광주시향 청소년의 달 특별음악회 ... 22일 문예회관

조금은 난해하게 느껴지는 클래식에 익숙해지려면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과 친해하는 게 중요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레퍼토리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춘 레퍼토리라 재미있는 해설은 청소년들과 클래식 음악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청소년 관객들을

위한 '재대로' 된 음악 프로그램을 만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오는 22일(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열리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주회는 청소년 뿐 아니라 클래식 입문자들에게도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공연 레퍼토리는 브리튼의 '청소녀를 위한 관현악 입문 작품 34',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지휘 임흥규, 해설 이어진

버디가 편곡한 클래식 하이라이트 메들리 등이다.

임흥규 부지휘자가 출연하며 광주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이자 PBC-FM '평화음악실' 진행자인 이어진이 해설을 맡았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청소년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성심은 교수 회갑 헌정 가야금 연주회

20일 광주문예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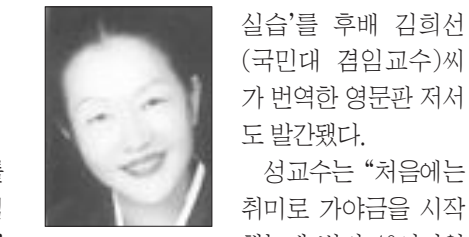
전남대 국악과 성심은 교수(사진)가 올해로 회갑을 맞았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1965년 가야금을 접한 성 교수는 44년의 세월동안 연주자로, 교육자로 바뀐 삶을 살아왔다.

성 교수는 이끄는 빛고을무용가야금 연주단이 2009 정기공연을 성교수 회갑 기념 헌정 공연으로 준비했다.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류재한(전남대 불문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번 공연에서는 성 교수의 스승인 김죽과 선생이 완성한 '김죽과류 가야금 산조'와 '뚜리리'가 공연되며 성용원씨에게 위촉한 '25년'을 위한 김죽과류 가야금산조 3중주-초연'을 처음 선보인다.

또 박세중(전남대 국악과 강사)씨가 작시·작창한 '화합연가'를 주소연씨가 부르며 성교수의 호를 딴 축시 '금선(琴仙)'을 황승욱씨가 낭송한다.

그밖에 성교수의 저서인 '가야금 주법과



실습'을 후배 김희선(국민대 겸임교수)씨가 번역한 영문판 저서도 발간했다.

성교수는 "처음에는 취미로 가야금을 시작했는데 벌써 4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며 "이제야 산조가 무엇인지 알 것 같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성씨는 국악과의 동태하원을 졸업한 성교수는 지난해 광주시문화예술상을 받았으며 주요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산조(김죽과류) 이수자다. 문의 062-653-89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층수	
광주	동구	동구	112940	19.3층	9년
	북구	북구	892277	8.2층	5년
	서구	서구	105222	19.1층	7년
	남구	남구	53119	4.2층	3년
	동구	동구	112340	19.1층	7년
	북구	북구	129330	19.5층	19.5년
	서구	서구	105322	19.2층	19.2년
	남구	남구	165500	19.6층	19.6년
	동구	동구	102333	9.2층	8.2년
	북구	북구	105322	19.2층	19.2년
대구	동구	122327	19.2층	19.2년	
	북구	126330	19.5년	19.5년	
	서구	105327	19.2년	19.2년	
	남구	129330	19.2년	19.2년	
	동구	108333	19.2층	19.2년	
	북구	129330	19.2년	19.2년	
	서구	108333	19.2년	19.2년	
	남구	129330	19.2년	19.2년	
	동구	108333	19.2년	19.2년	
	북구	129330	19.2년	19.2년	
부산	동구	129330	19.2년	19.2년	
	북구	108333	19.2년	19.2년	
	서구	129330	19.2년	19.2년	
	남구	108333	19.2년	19.2년	
	동구	129330	19.2년	19.2년	
	북구	108333	19.2년	19.2년	
	서구	129330	19.2년	19.2년	
	남구	108333	19.2년	19.2년	
	동구	129330	19.2년	19.2년	
	북구	108333	19.2년	19.2년	

• 서구청청 광주세무사타운5층 • 권리분석·현장조사·입찰대행·낙찰·진급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업선·명도(이사)